

해운대호텔 설계공모 _ 2021. 12

Haeundae hotel Construction Design Competition

설계자 _ Architect. 허동윤 · 김중문 _ Heo, Dongyoon · Kim, Jongmoon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_ Sangji Environment & Architects · Keunjeong Architects & Engineers



발주자 우정사업조달센터 | 설계팀 금두연, 김시형, 윤택용, 전용화, 김한구, 서용규, 신동희, 문하정, 이지혜, 서장민, 박보슬, 박종원, 이초원, 이옥규, 이정옥, 고지원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5번길 6 | 주용도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 1,504.00㎡(지침면적) / 1,476.36㎡(제적시) |
 건축면적 1,039.68㎡ | 연면적 23,636.37㎡ | 건폐율 70.42% | 용적률 1,048.92% | 규모 B3F - 27F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감 세라믹패널, 메쉬 패브릭, 유글라스, 로이복층유리

Haeundae Journey : 해운대와 마주하다

주어진 대지는 해운대 바닷가에 인접한 최상의 위치이지만, 사업부지 주변을 에워싼 건물들에 의해 남측의 바다를 향한 조망이 일정높이까지 막혀있는 입지 조건이었다. 객실로부터의 오션뷰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바닷가에 인접한 부지의 지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층을 최소화하고 지상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향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운대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스폿(spot)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층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아트그라운드) 및 리테일 시설을 마중공간으로 계획했으며, 가로경관을 고려한 주차장의 입면 특화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해변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독창성을 통해 특별해지는 일상의 경험, 그리고 소중한 기억

해운대 해변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지상 8층에 위치한 리셉션 로비와 레스

토랑, 그리고 이와 긴밀하게 연결된 연회장(9층) 등의 부대시설은 4성급 호텔에 걸맞은 품격과 독창성을 갖추었으며, 최상층에 위치한 수영장은 해운대 바다를 유영하는 듯한 경험적 즐거움을 최고조로 이끌어줄 수 있다. '호캉스'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호텔이라는 시설은 과거에 비해 대중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졌으며 그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과 그 안에서의 경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객실 또한 다양한 이용 고객을 위한 테마별 공간특화를 제안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객실공간계획을 수립했다.

본 공모는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발주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상지건축)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상지건축의 당선은, 어려운 대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이를 인정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성취라 할 수 있다.

